



내민 작은 손  
 마주하는 밝은 미소  
 함께하는 즐거움

충남대민국의 중심

# 손길 나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묻어나는 행복한 소식지

2007

가을호 | 통권32호



#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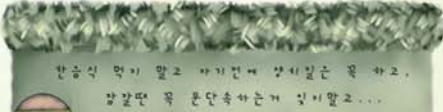
충청남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이 밤바의 어가새를 주물러 드립시다.

밤  
바  
의  
어  
가  
새

아빠는 항상  
버스 정류장까지  
바라다 주었다.



한습신 먹이 말고 자기한테 생치일은 꼭 하고,  
갈때 꼭 문닫속하는거 잊지말고...



www.papepopo.com





# 하반기 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육 안내

## 1. 교육내용

-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의의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흐름 및 중요성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영역
- 무엇을 할 것인가(프로그램소개)
- 청소년자원봉사의 특성 및 자세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실천단계
- 대학에서의 봉사활동 반영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

## 2. 확인서

-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양식에 기재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웹신청(방안1)	학교자체처리(방안2)
신청 방법	1. 학생개인별로 신청 2. 본센터 (www.bongsai.or.kr)회원가입 3. '봉사활동신청' 클릭 4. 본인 학교명의 소양교육 프로그램 선택 5. 활동명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1. 본센터에서 교육 후 학교계획에 의거 해당학교에서 자체 처리함
불참자 처리	1. 교육당일 강의자에게 불참자는 표시하시어 명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고	1. 미가입 및 미신청 학생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학생 개개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본센터에서 교육 후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3. 소양교육 신청서

본센터 홈페이지 [www.bongsai.or.kr](http://www.bongsai.or.kr) 접속  
공지사항 161번 「소양교육 신청안내」의 첨부물에서 다운로드 사용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북카페 운영

지역 작은도서관 '북카페' 운영을 위한 책을 기증받습니다.(헌책·새책)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집에서 잠들어 있는 책을 모아 지역 작은도서관 북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에서 보지 않고 잠들어 있는 책이나 새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좋은책의 나눔을 통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단체·학교·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제외도서 : 2002년 이전도서, 오락만화, 잡지류 등
- 모집기간 : 2007년 11월까지
- 보내실곳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논산공설운동장내(차북)
- 담당자 : 이영미(736-9003)



# I Love 청소년 제9회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일시: 2007. 10. 20(토)~21(일)

장소: 천안 유관순체육관

## 응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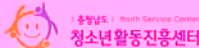
### 1. 공모부문

- 실천부문**
  - 개인 봉사활동 활동기간동안 실시한 교내·외 봉사활동 실천사례
  - 동아리 봉사활동 활동기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천사례
- 문예부문**
  - 체험수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감
  - 홍보(만화·

주최



주관



우원



# 꿈을 향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청소년진로길잡이란?

청소년 시기는 배움의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탐색하고 준비를 하지요. 심리검사도 하고, 진로상담도 받고, 학교나 책,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직업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외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질문하고, 청소년진로안내전문가에게 답변을 받는 웹사이트(www.youthdream.go.kr)입니다.

청소년진로길잡이에는 씨말레(영원한친구라는 뜻의 우리말)와 꿈이루美가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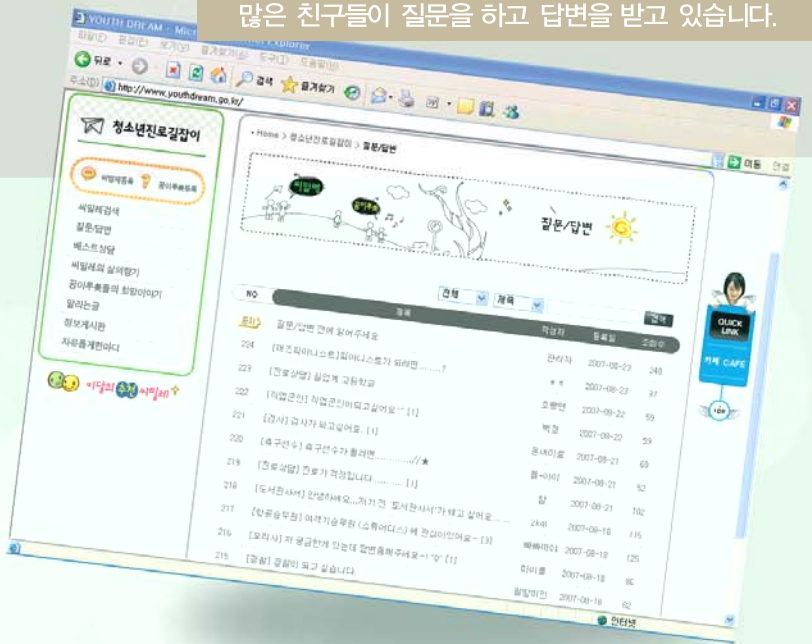


이게 바로 '청소년진로길잡이' 사이트입니다.

## 씨밀레(청소년진로안내전문가)란?

청소년진로 길잡이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회저명 인사, 전문가, 실무자분들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 꿈이루美란?

꿈이루美란 '내꿈을 찾아 이뤄가는 아름다운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진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진로길잡이의 꿈이루美가 되실 수 있습니다. 꿈이루美가 되시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분개 현장의 생생한 조언과 경험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 13~18세의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며 만12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도 물론 꿈이루美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진로길잡이’는 타 진로상담사이트와 다릅니다.**

청소년진로길잡이는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청소년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진로상담 또는 멘토링 시스템과 차별화 됩니다.



# 재미있는 어원이야기

## 사리

흔히 일본어로 잘못 알고 있는 '사리'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이 '사리'는 '사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실 같은 것을 흘리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것을 얘기한다.

'몸을 사린다'는 말에 쓰일 때는 '어렵거나 지저분한 일은 살살 피하며 몸을 아낀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국수나 새끼, 실 등을 동그랗게 감은 문치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 성냥

불을 켜는데 썼던 '성냥'은 마치 고유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한자어였습니다.

즉, '석뉴향'이 음운 변화를 겪어서 '성냥'이 된 것입니다.

## 가물치

'-치'는 물고기 이름을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꽂치, 녀치, 준치, 멸치'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가물'이란 무엇일까요?

천자문을 배울 때, '하늘 천, 따 지, 가물 현'이라 하지요. 물론 지금은 '검을 현'이라고도 합니다. '가물'은 오늘날의 '검을'에 해당합니다. 옛날엔 '검다'를 '감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물치'는 '감+을+치'로 구성되어 있지요, 결국 '검은고기'란 뜻입니다.

## 귀고리와 귀거리

요즈음은 여성들이 '귀'에 '고리'를 '걸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곧잘 '귀고리'를 '귀'에 '거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귀걸이' 또는 '귀거리'로 인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고리'는 원래 '귀'에 거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귀'에 '거는', '골획'여서 '귀엣골획'였다가, 20세기에 들어서야 '귀고리' 또는 '귀골획'가 되었다가 요즈음은 '귀고리'로 변했습니다.

최근에 정한 표준말에서도 '귀고리'로 결정되었습니다. 귀에 '거는' 것이 아니라 귀에 거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요즈음은 '귀고리'가 '고리'가 아닌 다른 모양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아마 '귀고리'를 '귀거리'로 이해하시는 것 같군요.

## 시냇물

‘시냇물’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지만 그 어원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래 ‘시냇물’은 ‘실’ + ‘내’ + ‘물’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실’은 ‘곡골 곡’의 뜻입니다(아직도 고유 지명에 ‘실’이 쓰이고 있습니다. ‘밤실’ 등 무척 많습니다. 결국 골짜기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내’는 ‘천(내 천)’의 뜻이고요(그런데 이 ‘내’도 원래는 ‘나리’였습니다.)

결국 ‘시냇물’은 골짜기를 흐르는 냇물이란 뜻입니다.

## 양말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양말’이 한자에서 온 말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겠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자어입니다.

원래 버선을 한자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버선 말’ 자이지요. 그런데 서양에서 이 버선과 비슷한 것이 들어오니까 버선을 뜻하는 ‘말’에 ‘양’자를 붙여서 ‘양말’이라고 했습니다. 버선하고 양말이 이렇게 해서 달라졌던 것입니다.

## 박쥐

‘박쥐’는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짐승이지요.

우선 징그럽기도 하고, 또 밤에만 나돌아 다녀서 그런지, ‘남몰래 밤에만 음흉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욕할 때, ‘박쥐 같은 놈’이라고 하지요. 이 ‘박쥐’에서 ‘쥐’는 그 뜻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박’이 붙었으며, 또 그 ‘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쥐’는 원래 ‘박쥐’였지요. 아마도 ‘눈이 밝다’는 뜻으로 ‘박’이 쓰인 것 같습니다.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하여 그 반사음을 포착하여 방향을 조정해서 야간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니까, 그 전에는 ‘눈이 밝은 쥐’로 이해할 만도 하겠지요.

## 을씨년스럽다

을사보호조약(1905)으로부터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하고 흐린 것을 ‘을사년스럽다’고 하던 것이 변하여 ‘을씨년스럽다’가 된 것입니다.

## 이판사판

‘이판사판’은 한자어입니다.

유래를 살펴보면 불가에서 쓰는 ‘이판스님’과 ‘사판스님’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로서, 본래 ‘이판스님’은 불경 연구와 참선에만 열중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판스님’은 절의 운영 및 경리나 행정을 맡아보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뒤에 이 경계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뜻이 변하여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 싸가지, 싸수

‘싸가지’의 ‘싸~아지’로 새싹의 ‘싸’에 ‘강아지 망아지’처럼 작은 것을 뜻하는 ‘~아지’가 붙어 만들어진 말인 듯합니다.

그런데 ‘싸가지’는 ‘싸수’의 강원도와 전라남도 방언입니다.



## 하룻강아지

흔히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룻강아지'는 원래 '하루'에 '강아지'가 붙어서 이뤄진 말이 아니라, '하룻'에 '강아지'가 붙어서 이뤄진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룻'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룻'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현재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한 살 된 동물의 나이를 셀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룻'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룻강아지'는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가 아니라 '한 살 된 강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 눈꼽

'눈꼽'의 '꼽'은 원래 '곱'. '곱은 기름'이란 뜻. '꼽'자가 들어간 단어를 생각해 보시지요. '눈꼽, 배꼽, 손꼽' 등이 있습니다. 이때의 '눈', '배', '손'이야 모르실 리 없겠지요. 그런데 '꼽'은 무슨 뜻일까요? '꼽'은 원래 '곱'으로서 이때의 '곱'은 '기름'이란 뜻입니다. 이 '곱'은 '창'에도 남아 있습니다. '곱창'이 '기름 덩어리'임을 모르실 리 없겠지요.

## 마누라

원래 '마누라'는 '마노라'로 쓰이었는데, '노비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로, 또는 '임금이 나 왕후에게 대한 가장 높이는 칭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존칭으로서, 높일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 썰매

'썰매'는 엉뚱하게도 한자어입니다. 즉 '설마'(눈 설, 말 마의 음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위에서 달리는 말'이란 뜻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럴 듯하게 이름을 붙였지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슬기롭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 달걀, 계란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사물을 몇 가지의 명칭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달걀'입니다. '달걀'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란'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겨란'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달걀'은 고유어이고, '계란'과 '겨란'은 한자어입니다. '달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닭이알'의 그 원래의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소유격 조사인 '의'가 단모음화되어 '이'가 되니까, '닭이알'이 되고, 이것이 변하여 '달걀'이 된 것입니다. '계란'은 '닭 계, 알 란'의 두 한자가 모여서 된 단어이고, '겨란'은 이것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 섬유회사 '코오롱'

우리나라에 '코오롱' 회사가 있지요. 원래 이 회사는 섬유로부터 시작한 회사입니다. '코오롱'은 '코리아+나이롱'에서 온 말입니다.

# 목숨도 노리는 가을철 3대 열성질환 주의보

가을에 야외 활동 후에 생기는 열과 오한, 몸살기운은 유행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가을 대표적 유행병 3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유행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이 세 질환은 원인균은 다르지만, 가을철에 왕성히 발병하며 병의 전파과정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세 질환은 주로 9~11월에 발생하며 잠복기가 2주 정도며, 발열과 두통 등 전신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열이 나고 벌레 물린 자국이 있어 발진이 있다면,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쯤쯤가무시병

쯤쯤가무시병은 동남아시아 및 극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증으로, 도시인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쯤쯤가무시는 진드기 유충 몸속에 잠복해있다가 진드기 유충이 사람의 체액을 빨아먹을 때 침투합니다.

약 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 오한, 두통, 림프절 비대,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폐렴, 심근염, 뇌수막염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은 주로 몸통에 나타납니다. 진드기가 물었던 곳에 특징적인 가피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열이 나고, 소변을 자주 보며, 출혈이 있다면 쥐에 의해 전파되는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은 벌초 등 야외활동의 불청객으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열성질환입니다. 이 병은 늦가을(10-11월)과 늦봄(5-6월) 건조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병은 들쥐의 72-90%를 차지하는 등줄쥐(*Apodemus agrarius*)의 건조된 배설물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추정됩니다.

약 2~3주의 잠복기를 거쳐 감기 증상을 보인 뒤 발열, 오한, 두통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7%에 달합니다. 임상 경과로는 5기로 나눌 수 있는데 발열기(3-5일), 저혈압기(수시간-3일), 핏노기(3-5일), 이노기(7-14일), 회복기(1-2개월)순으로 나타납니다.

## 황달이 나타나면서 신장 출혈 등이 있다면 가축, 개, 쥐 등에 의해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 역시 농촌지역에서 주로 들쥐를 통해 매개되며 발병 초기 과로로 인한 감기 몸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균이 인체 대부분의 장기에 침범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간이나 신장 합병증 또는 다량의 폐출혈이 동반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법

- 야외에서 풀밭에 눕거나, 맨발로 활동하지 않으며, 담요 등의 침구와 의복을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 야외 작업을 할 때는 긴 소매 옷과 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옷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털고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합니다.
- 논이나 수풀 주변에 고인 물에 맨손, 맨발을 담그지 않도록 합니다.
-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농부, 골프선수, 군인 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야외 활동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원인 모를 열과 오한

\* 두통과 전신 근육통(몸살기운)

\* 원인 모를 피부발진과 피부 상처



# 의회 · 대통령이 주는 상 받을 정도면... 자원봉사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상을 받을 목적으로만 자원봉사를 한다면 봉사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겠지요. 자원봉사 문화가 일천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무엇을 자원봉사 기준으로 삼을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원봉사에 대한 상과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 봉사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The Congressional Award는 1979년 워싱턴 DC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제정한 상입니다. 14~23세의 젊은이들에게 사회봉사 정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창의적인 도전의식,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미국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은 정해 놓은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교생과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나뉘어 총 6개 부문의 상이 수여됩니다. 카테고리는 Certificate와 Medal로 나뉘고, 각각의 카테고리는 Bronze, Silver, Gold로 나뉩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부문의 성취를 모두 이뤄내야 합니다. ▶ Volunteer Public Service ▶ Personal Development ▶ Physical Fitness ▶ Expedition/Exploration 부문이 그것이지요. 매년 미국 전역에서 150~250명이 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입니다. 2002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평생을 통해 4000시간을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President's Council on Service and Civic Participation이란 기구를 만들었고, 이 기구가 바로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개인은 물론 가족, 그룹에게도 수여됩니다. 1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활동한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 상이 주어집니다. 예컨대 Bronze Level은 어린이는 50~74시간, 청년은 100~174시간, 성인은 100~249시간, 가족·그룹은 200~499시간을 봉사한 경우에 받습니다. Gold Level은 각각 ▶100시간 이상 ▶250시간 이상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활동을 해요

공주중동초등학교 김재한

8월 30일 우리는 공주의료원 3병동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장소가 매우 좁고 천막으로 쳐져있고, 담배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형들과 함께 이런데서 어떻게 음악회를 열까 했지만 박영주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운이 났습니다. 항상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앞에서 하는 봉사가 성공한 봉사활동은 아니라 천막속에서라도, 단 한분을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은 제가 연습부족으로 많이 틀렸지만 다음 주에는 연습해서 잘 연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천연비누 만들어 복지시설에 전달하기



● 크리스탈페이퍼플라워 만들기(부꽃)





# 다른 얼굴, 한 마음

↙ **쌍별여자중학교 이현경** ●

● 오늘은 정말 특별한날이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던 봉사활동 15시간. 바쁜 학교와 학원생활에 봉사활동을 할 시간은 노는 토요일뿐이었다. 그것도 토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서 오전시간에만 가능했다. 내가 할 자리가 있는 곳은 작은자의 집. 솔직히 처음 갈 때는 많이 두려웠다. 그곳에 다녀온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러운 것이 있다느니, 그것을 내가 다 치워줘야 된다든지... 비위가 약한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사전에 전화도 했었다. 담당자께서는 밥을 먹여주는 일도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것이 정말 손발이 떨릴 만큼 두려워서 결국 엄마와 함께 그곳에 갔다. 처음엔 정말 쉬웠다. 우리가 할 일은 그늘 속에서 사무실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모두 안 켜고 해서 많이 무더워 땀도 송글송글 흘러내렸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콧물이 묻은 손수건을 보았다. 처음엔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어렸을 땐 내 콧물을 먹었을테고, 나도 코를 푸는데 저것을 다르게 생각할 일이 있나...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았다. 닦고 난 후에는 물론 약간 짹짹하기는 했다. 청소를 한 후 밥을 먹여드리는 일도 했는데 내 몸을 자꾸 만지려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무섭기도 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지 많이 좋아하셨다. 어떤 아이는 춤도 추었다. 춤을 추는 아이를 보고 생각한 것이 바로 글의 제목이다. 비록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셨다고 해도, 좋으면 좋아하고, 슬프면 슬퍼하는 것이 같은 사람인데... 가기 전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내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어쨌든 끝나고, 교회에 걸어가는데 내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다. 내가 떠나기 전 웃으면서 잘가라고 해주시던 장애인분들의 그 웃음이 뜨거운 땀별을 가려주었다. 장애인이란 단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주어진 잘못된 편견일 뿐이다. 나도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장애인들을 무서워하는 버릇이 있지만...



◀소프트클레이로 메모꽃이 만들기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음악봉사활동



# 말복맞이 학부모봉사단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면전중학교 신성희

오늘은 말복을 맞이해서 광명살버하우스 복지 재단에 가서 학부모봉사단은 닭죽을 만드시고 우리들은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종이 접기를 하였다. 종이접기를 다하고 나서 닭죽 먹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상을 피고 자리를 준비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맛있는 닭죽을 대접해 드렸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 다음 우리가 준비한 흥겨운 사물놀이와 국악의 묘미 판소리를 보여 드렸고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과 함께 천안삼거리 등등 연주해 드렸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인 발마사지를 해드렸다. 발마사지를 오랜만에 해서 인지 떨리기도 하였다. 그런 후 학교에서 준비한 양말을 할아버지, 할머니 발에 신켜드렸다. 오늘은 정말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뜻 깊은 오전에서 오후를 넘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봉사활동 가는 사람이 많아 차량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만큼 우리학교는 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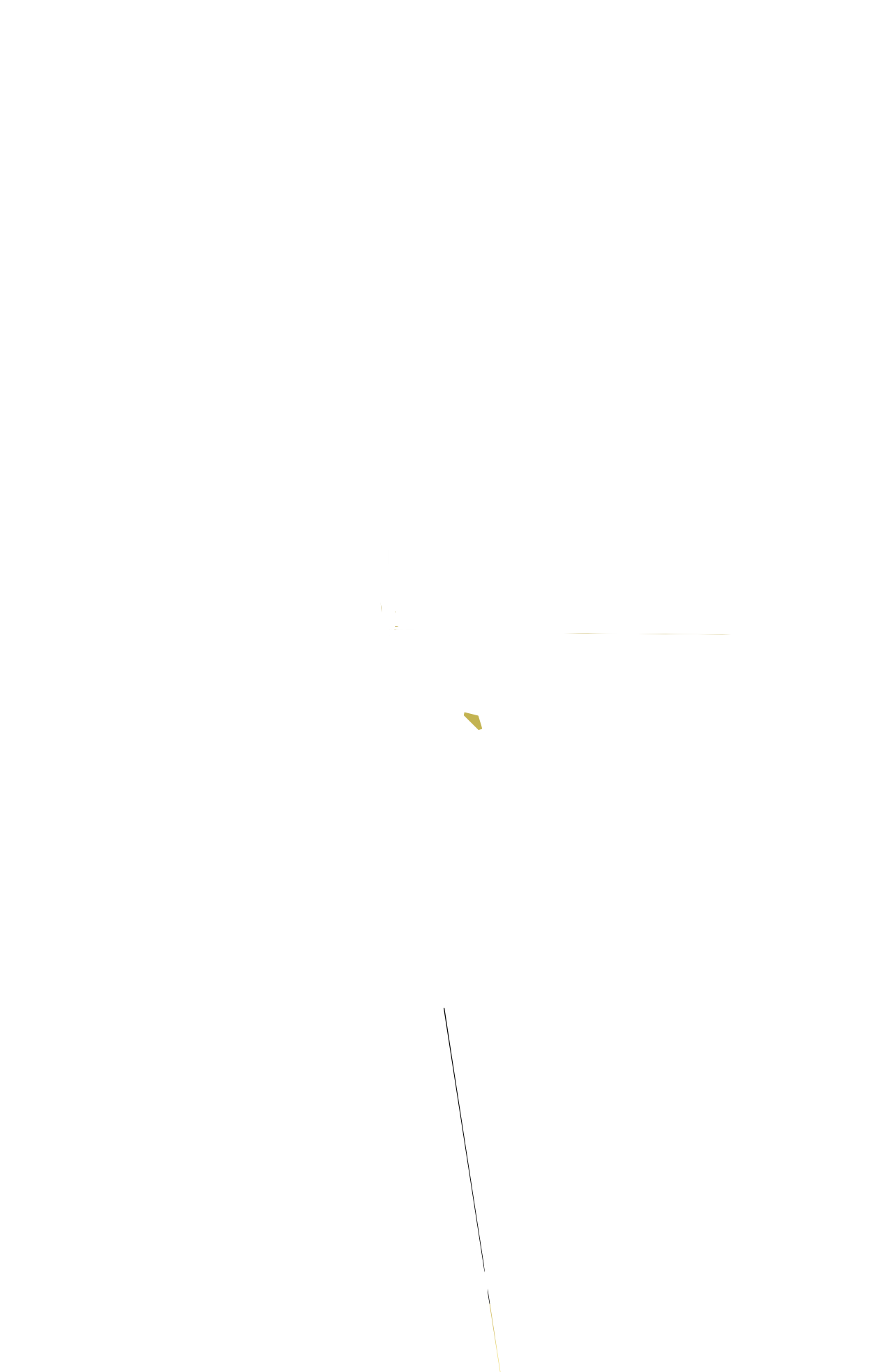


◀2007여름문화학교 레프팅

2007여름문화학교 ▶ 서바이벌

2007여름문화학교 ▼도미노 게임







# 청소년을 21세기 주역으로 육성

##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 청소년과 도지사와의 만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2회 이상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독립된 인격체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1회, 문화정보지 발간 4회,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 5회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예절마당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집 7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울마당, 음악회, 동아리육성 등 3가지 이상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련활동 공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

- 청소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육성장학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15개 이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봉사활동터전을 30곳 이상 확보하여 봉사활동을 돕겠습니다.
- 청소년의 진로, 이성, 성문제 등 고민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연 2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www.bongsai.or.kr



충청남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20-802)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전화 | 041 · 736 · 9003(4)  
팩스 | 041 · 733 · 1984

홈페이지 | [www.bongsai.or.kr](http://www.bongsai.or.kr)

청소년  
활동